

學校 對 課外：韓國 教育의 選擇과 衡平 *

李周浩 ** · 洪聖昌 ***

논문초록

한국 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과외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우리나라 과외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한 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가 과외의 급팽창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교육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우리 교육에서의 한 중요한 측면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고는 우리의 교육이 양적 팽창을 통한 학교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주요 목표를 빠른 기간에 달성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교육의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핵심 주제어: 학교교육, 과외, 교육형평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0

I. 서언

교육에 대한 평가는 크게 양적 확대, 질적 수준, 형평성의 세 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여 더 많은 교육기회를 확충하였으며, 얼마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학부모, 학생,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김선웅 교수님, 숭실대학교 조우현 교수님, 교육개혁연구회 참가자 분들과 익명의 논평자 두 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우수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박성록, KDI의 이희숙, 조영신씨에게 감사드린다.

** KDI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jhl@kdischool.ac.kr

*** KDI국제정책대학원 학생, tankgunner92@hanmail.net

며, 이러한 교육의 성장과 질적 향상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골고루 미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World Bank, 1996).

우리 교육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세 가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우리 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특히 학교와 과외의 역할과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80년 이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온 과외금지 조항에 대하여 2000년 4월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정 이전에도 과외는 우리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과외는 법률적으로도 한국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공식화된 셈이다.

한국은 교육의 양적 확대에 있어서 개발 년대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학교교육의 팽창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90년대 들어와서는 과외가 학교보다 양적으로나 지출 금액의 측면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급팽창하고 있다.

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외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은 직접적으로는 학생들의 시험성적, 간접적으로는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학생 시험성적의 경우, 우리 학생들이 국제학업성취도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학생의 높은 시험점수가 시험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된 입시위주 교육 아래서 창의력, 사회적 능력 등 다른 중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결과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교육이 균형 잡히지 못하였다는 왜곡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이주호, 우천식, 1998). 만약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에 있어서 과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학교교육과 함께 크게 팽창한 과외가 우리 학생의 시험성적을 올리는데 더 기여하였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도 지난 40여 년의 빠른 경제성장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보다는 양적 팽창에 의하여 주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 형평성에 관하여는, 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 수준인 현재의 상황에서 양적으로는 이제 학교교육 기회가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제공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 교육이 질적으로도 다양한 계층에게 가능한 한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급팽창한 과외가 우리 교육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우려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의 엄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재학생 혹은 졸업생의 시험성적,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제약 아래에서 비교적 풍부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과외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 교육에 있어서 과외와 학교간의 선택과 이에 따른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우리 교육의 양적 확대를 학교교육의 기회확대와 과외지출의 팽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제 3절에서는 과외가 얼마나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기여하는지, 즉 학교교육과 과외에 대한 대학의 선택을 분석하고, 제 4절에서는 어떤 학부모와 학생이 과외 지출을 하는지 또한 과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즉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분석하며, 제 5절에서는 학교제도의 차이가 과외지출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하여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의 과외지출의 수준을 분석하고, 제 6절에서는 우리 교육의 형평성에 대하여, 특히 과외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마지막 제 7절에서 끝을 맺는다.

II. 학교교육 기회확대와 과외지출의 팽창

우리의 학교교육은 양적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취학률¹⁾은 1953년 각각 60%와 21%수준이었으나 급격히 팽창하여 각각 1970년경과 1985년경 100%수준에 도달하였다. 고등학교의 취학률 역시 1953년의 12%수준에서 1980년의 64%, 1990년의 88%, 1999년의 97%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빠른 성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의 급격한 팽창의 기반이 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은 특히 1990년대에 빠른 성장을 보여 취학률이 1990년의 38%에서 1999년의 78%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제 학교교육의 기회확대는 이미 달성된 정책 목표이며 이제 더 이상 학교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교육 기회확대와 과외의 팽창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 1>에

1) 취학률 자료는 McGinn et al. (1980) 과 교육부의 『교육통계편람』 (1999) 을 참조.

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여 년 동안 6회에 걸쳐 조사한 교육비 조사를 다시 정리하였다.²⁾ 이에 따르면, 과외의 규모는 1977년 GDP의 0.7%에서 1998년의 2.9%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생을 위한 총교육지출(과외와 학교교육비의 합계)에서 과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1977년의 15.1%에서 1998년의 40.8%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1982년 과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1981년의 과외금지 조치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특히 최근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에 과외가 GDP의 1% 포인트나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과외의 급팽창은 가히 팔목할 만하다. 과외의 규모는 1977년 GDP의 0.7%에서 1998년의 2.9%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학교교육을 위한 정부의 투자인 공부담 학교교육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GDP의 약 2.6%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다가 1995년 교육개혁

〈표 1〉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구성과 추이: 1977~1998

(단위: %, 백만원)

	공부담 학교교육비	사부담 학교교육비	과외	총교육비	
	GDP 대비 비중 (총 교육비 비중)	GDP 대비 비중 (총 교육비 비중)	GDP 대비 비중 (총 교육비 비중)	GDP대비 비중 (총 교육비 비중)	총액 (기준년환산)
1977	2.3 (50.5)	1.6 (34.4)	0.7 (15.1)	4.6 (100)	816,610.408 (4,164,334.936)
1982	2.7 (56.5)	1.7 (34.7)	0.4 (8.8)	4.8 (100)	2,613,704.428 (5,864,654.69)
1985	2.6 (53.2)	1.4 (28.5)	0.9 (18.3)	4.9 (100)	3,961,839.345 (8,216,631.846)
1990	2.5 (52.9)	1.0 (20.9)	1.2 (26.2)	4.7 (100)	8,327,462.802 (13,256,420.254)
1994	2.7 (52.1)	0.7 (14.4)	1.8 (33.5)	5.2 (100)	16,865,127.565 (20,759,791.195)
1998	3.4 (47.3)	0.8 (11.8)	2.9 (40.9)	7.1 (100)	31,668,365.064 (31,668,365.064)

자료: 윤정일(1977), 김영철(1982), 공은배(1985), 공은배(1990), 공은배(1994), 김홍주(1998)

2)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까지 공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과외뿐만 아니라 통학비 등을 포함시킨 사교육비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학교교육과 과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인 1997년 3.4%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학생납입금과 같은 사부담 학교교육비는 1982년의 1.7%에서 1994년의 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사부담 학교교육비의 감소는 평준화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사립 중·고등학교까지 평준화 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립에 대한 학부모 부담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정부가 평준화정책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민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한 노력은 전적으로 민간부담인 과외의 급격한 증가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본고는 이렇게 급격히 팽창한 과외가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짐을 강조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GDP의 2.9%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공적 부담인 GDP의 3.4%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과외의 내용이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한 다는 점에서, 과외의 급팽창은 우리 교육의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특히, 본고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한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과외의 급팽창→교육의 형평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논거에 초점을 맞춘다. 학교교육이 부응하지 못하는 초과교육수요에 의하여 과외가 유발되었으며, 과외의 팽창은 학교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논거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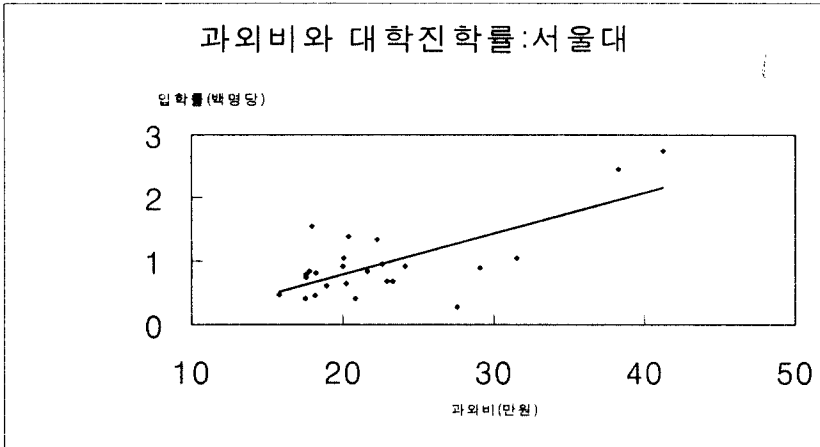
III. 대학의 선택

왜 과외를 하는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지역(구) 별 과외 지출과 평준화 고교(일반계 고교 중에서 특목고를 제외한) 졸업자의 상위 대학 진학률³⁾의 분포가 서울대의 경우 지역별로 최고치가 최저치의 약 10배 차이가 나며, 서울 상위 3개 대학의 진학률의 지역 간 차이도 최고치가 최저치의 약 5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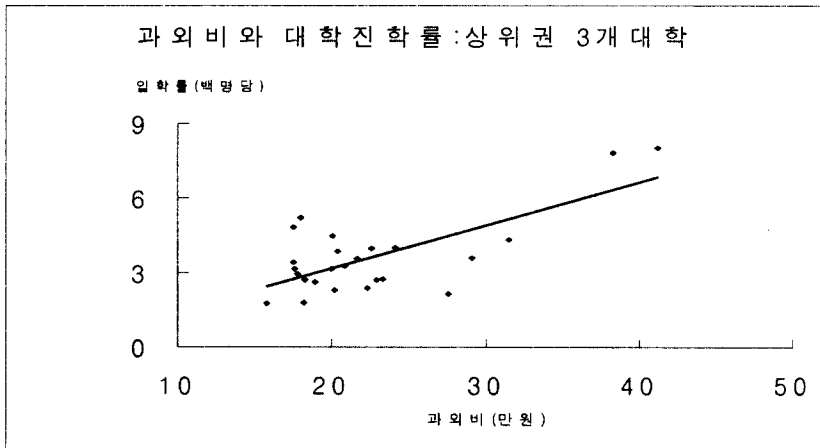
3) 본고에서는 대학 진학률을 당해 대학 입학자의 수를 당해 고교졸업자의 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교육통계편람 등에서의 진학자/졸업자로 정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당해 대학 입학자 중에서는 반드시 당해 졸업자만이 아니라 재수생도 상당 부분 포함되기 때문이다. 1999년의 경우 전체 고졸자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본고의 정의에 따르면 84%이나 교육통계편람의 정의로는 67%이다. 교육통계편람에 의하면, 일반계 고졸자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85%이고 실업계 고졸자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39%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간 상위 대학 진학률의 격차는 무엇보다도 지역(구)의 평균 과외지출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즉, 과외 지출이 높은 지역이 그 만큼 상위 대학에 자녀를 많이 진학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그림 1> 서울시 지역(구)별 과외비와 고교(평준화) 졸업자의 진학률



주: 상관계수=0.70341



주: 상관계수=0.710706

4) 서울시 지역(구)별 1999년도 상위 대학 진학률 자료는 정책기획위원회(대통령 직속)의 협조를 얻어서 각 대학에서 입수하였고, 서울시 지역(구)별 과외지출은 소비자보호원의 1997년도 사교육비 조사 원 Tape에서 구하였다. 서울시 지역(구)별 과외 지출과 대학진학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Lee and Hong (2000)을 참조.

상관관계는 특히 우측 상단에 자리한 두 개의 지역(강남구와 서초구)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두 지역이 우리의 교육 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분석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지역이다.

<표 2>에서는 서울시의 25개 구별 평준화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을 설명하는 회귀 분석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⁵⁾ 여기서 우리는 지역의 대학진학률이 지역 주민의 전체 교육수준에 의하여 매우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지역의 소득수준에 대한 대리변수(proxy) 들인 지역별 자동차세와 주민세 평균액은 진학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득수준의 영향이 미약한지 아니면 대리변수들이 지역의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간하기 힘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의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역의 과외 지출이 상위 대학 진학률, 특히 서울대학교 진학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구별 학생들의 사립고교 재학 비율은 전체 대학 진학률에 대하여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서울대학교 혹은 상위 3개 대학 진학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 혹은 유의미하지 못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부모의 학력 수준 이외에 과외 규모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한편, 그 지역의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은 오히려 음의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선발,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인사, 수업료 책정 등에 있어서 강하게 규제하였던 평준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가 상위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는데는 성공하였지만, 학부모가 과외에 집중 투자하여 자녀들을 상위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고등교육 진학률은 이미 84%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특정 요인에 의하여 지역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각 구별 평준화고교 졸업생의 전체 대학진학률과 고등교육진학률은 물론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서울교육통계연보로부터 계산하였다. 구별 주민의 교육수준은 통계청의 1995년도 인구주택조사로부터, 구별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서울시의 1997년도 서울시지방세 연보로부터 구하였다.

그러면 과외를 학교교육이 부응하지 못한 초과 교육수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외국의 경우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도 학교교육의 주요 목표가 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배출이 아니라 대학으로의 진학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과외가 상위 대학의 진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학교가 가장 주요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학부모에게 제공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입시 제도가 지나치게 시험위주여서 학교에서는 오히려 보다 중요한 측면에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정상화'를 강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과외의 입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대학들이 과외보다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을 더 많이 입학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외의 급격한 팽창은 학교교육이 학부모, 대학,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표 2〉 서울시 지역(구)별 평균화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률에 대한 OLS 추정결과: 1999

	서울대 진학률		상위 3개대 진학률		전체대학 진학률		전체 고등교육 진학률	
상수항	-4.999*** (-3.724)	-4.924*** (-3.364)	-18.081*** (-5.166)	-16.632*** (-4.201)	-33.998 (-1.580)	-48.920** (-.218)	50.265 (1.663)	27.318 (0.824)
과외지출	0.032** (2.424)	0.050*** (2.914)	0.050 (1.448)	0.066 (1.437)	-0.118 (-0.558)	0.188 (0.096)	0.175 (0.589)	0.467 (1.206)
사립학교 비율	-0.626** (-2.102)	-0.706** (-2.242)	0.674 (0.869)	0.786 (0.923)	10.917** (2.289)	7.336 (1.476)	6.230 (0.930)	1.634 (0.229)
교육수준	0.494*** (3.843)	0.499*** (3.561)	1.750*** (5.225)	1.630*** (4.297)	7.232*** (3.512)	8.808*** (3.980)	1.007 (0.348)	3.304 (1.040)
자동차세	—	-00.003 (-1.726)	—	-0.006 (-1.077)	—	-0.028 (-0.914)	—	-0.011 (-0.243)
주민세	—	0.002 (0.432)	—	0.010 (0.972)	—	-0.068 (-1.187)	—	-0.117 (-1.410)
d.f	21	19	21	19	21	19	21	19
Adj-R ²	0.730	0.743	0.749	0.743	0.445	0.488	-0.028	-0.010

주: () 내는 t-value, ***: $p < 0.01$, **: $p < 0.05$, *: $p < 0.1$

IV.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

그러면 과외지출은 어떠한 지역의 어떠한 가정에서 어떠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일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우리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사교육비 조사의 원 Tape을 분석하였다.⁶⁾ <표 3>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원래 가구별로 분류되었던 자료를 학생별로 다시 분류하여 본 결과, 과외를 하는 학생이 약 75%나 되며 과외를 하는 학생 당 약 14만 4천 원을 지출하여 가구소득의 약 5%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는 크게 학원, 개인교습, 학습지 등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60%)이 학원을 이용하는 반면 참여학생 당 지출은 개인교습이 27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초·중·고등학생 및 재수생의 과외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는 <표 4>에 있다. 과외 지출은 농촌에 비하여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순으로 많으며, 고소득자, 주택소유자, 아파트 거주자, 컴퓨터 소유자, 고학력자, 자녀수가 적은 자 등이 더 많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또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과 재수생이 더 많다.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촌지역간의 과외 지출의 차이와 우수한 학생의 높은 과외 지출은 다른 과외 유형보다 주로 학원 과외 지출의 차이에 기인하고, 가구소득에 따른 과외 지출의 차이는 주로 개인교습 효과이다.

<표 3> 초·중·고등학생(재수생포함)의 과외: 1997

(단위: %, 원)

	참여율	과외비 지출(월말)		가구소득 대비 과외비 비중	
		참여학생당 지출	학생1인당	참여학생당	학생1인당
과외	75.1	143,954	108,177	5.08	3.80
학원	60	118,663	71,156	4.31	2.50
개인교습	8.2	275,526	22,718	7.32	0.80
학습지	34.2	41,822	14,303	1.49	0.50

주: 과외 = 학원 + 개인교습 + 학습지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조사 원 TAPE자료

6) 이 자료는 초중등 학생 혹은 재수생을 1명 이상 둔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사교육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개별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가 조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외의 유형별 과외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조사되어 있어서 과외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에서 사교육비로 정의한 것을 과외로, 과외를 개인교습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표 4〉 초·중·고등학생(재수생 포함)의 과외 지출(월별)에 대한 OLS 추정결과: 1997

	과외	학원	개인교습	학습지
상수항	-58139.24*** (-3.560)	-15333.00** (-2.196)	-43371.90*** (-2.985)	565.659 (.134)
서울지역	58147.86*** (7.327)	52258.33*** (15.495)	3773.30 (.538)	2116.23 (1.037)
광역시	31301.88*** (4.234)	21177.21*** (6.699)	7248.98 (1.102)	2875.69 (1.503)
중소도시	14627.17** (1.987)	17766.56*** (5.645)	-1775.097 (-.271)	-1364.295 (-.716)
가구소득	2.466E-03*** (8.885)	2.789E-06 (.024)	2.185E-03*** (8.849)	2.779E-04*** (3.871)
주택소유	13717.06** (2.412)	4370.91* (1.797)	6531.90 (1.291)	2814.26* (1.913)
아파트거주	22965.47*** (4.076)	8783.86*** (3.646)	9080.84* (1.812)	5100.78*** (3.499)
컴퓨터소유	22540.12*** (4.397)	8546.43*** (3.899)	11840.35*** (2.596)	2153.34 (1.623)
아버지교육수준	2319.20* (1.909)	1318.51** (2.538)	93.70 (.087)	906.99*** (2.885)
어머니교육수준	7430.68*** (5.563)	3308.20*** (5.792)	3736.68*** (3.144)	385.79 (1.116)
아버지전문직	7598.52 (.921)	-3138.75 (-.890)	14498.99** (.048)	-3761.72* (-1.763)
어머니근로	1230.60 (.225)	157.86 (.068)	4500.53 (.925)	-3472.79** (-2.424)
자녀수	-15116.33*** (-3.994)	-7583.63*** (-4.687)	-6525.69* (-1.938)	-1007.01 (-1.029)
학생성적1(상위10%)	18223.97*** (3.097)	12286.02*** (4.882)	5808.70 (1.109)	129.248 (.085)
학생성적2(10-30%)	9111.45 (1.539)	10307.76*** (4.071)	-3021.56 (-.574)	1825.26 (1.191)
학생성적3(70-100%)	14281.77 (1.150)	-8352.08 (-1.573)	25982.70** (2.351)	-33.48.85 (-1.042)
학생성별(남성)	-4991.55 (-.861)	283.53 (.114)	-7941.46 (-1.539)	2666.38* (1.777)
중학생	35495.12*** (5.954)	26271.99*** (10.305)	19931.65*** (3.758)	-10708.52*** (-6.942)
고등학생	9498.26 (1.516)	-289.53 (-.108)	21419.63*** (3.842)	-11631.85*** (-7.175)
재수생	176126.77*** (8.607)	197157.73*** (22.533)	393.45 (.022)	-21424.42*** (-4.047)
d. f	6680	6680	6699	6680
Adj R ²	.090	.188	.026	.032

주 : () 내는 t-value,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조사 원 TAPE자료.

또한 고등학생은 개인교습, 초등학생은 학습지, 중학생과 재수생은 학원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한다.

한편 과외의 가격(시간당 과외 지출)도 학생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과외를 받는 학생의 경우 재수생을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부과하여 방과후 과외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분명히 있다. 또한 과외는 학교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가 적으므로 차별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외는 가격의 차별화가 큰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5>에서는 과외를 하는 초·중·고등학생과 재수생의 과외 가격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를 보여 준다. 과외 가격의 경우 가구소득, 어머니 교육수준, 아파트 거주 여부에 따라 높아지는 것은 과외 지출의 경우와 유사하나, 과외 가격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촌, 등의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 학생성적이 낮은 학생, 여학생, 고등학생의 과외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과외 지출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특히 가구소득이 높은 자, 성적이 낮은 학생, 고등학생의 과외 가격이 높은 것은 개인교습 지출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지역별 차이가 과외 가격보다 과외 지출에서 눈에 띄는 이유는 과외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량의 수요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과외 시설의 높은 전세 비용 등을 상쇄하는 것으로 보인다.⁷⁾ 성적이 낮은 학생, 여학생, 고등학생의 과외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과외가 이들의 경우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고 있거나 혹은 이들에 대한 과외가 공급 측면에서 보다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고등학생은 실업계와 일반계로 나누어져 실업계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과외 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외 지출은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에 비하여 높지 않으나 과외 가격은 일반계 학생에 집중되어 높은 것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나 여학생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의 고비용으로 인하여 과외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습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사/학생 비율을 높이고 특별히 이들에게 적합한 학습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등 더 많은 교육비가 요구되는 것이 선진국의 학교교육에서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또한 여학생의

7) 이 결과는 본 논문의 논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본 연구의 자료가 농촌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표 5〉 과외참여 초·중·고등학생(재수생 포함)의 과외 가격(시간당 과외비)에 대한
OLS추정결과: 1997

	과외	학원	개인교습	학습지
상수항	1727.35 (1.152)	-70.06 (-.194)	18579.87 (1.592)	-2290.65 (-.178)
서울지역	14.55 (.021)	975.25*** (5.841)	-2913.91 (-.503)	10043.25* (1.674)
광역시	-379.59 (-.561)	-30.46 (-.189)	-2170.64 (-.382)	423.59 (.073)
중소도시	-135.87 (-.200)	361.18** (2.223)	-3393.31 (-.584)	4150.42 (.725)
가구소득	2.283E-04*** (8.677)	-2.343E-07 (-.036)	9.960E-04*** (6.525)	5.436E-05 (.246)
주택소유	128.45 (.262)	6.49 (.056)	2220.07 (.603)	2525.57 (.645)
아파트거주	1035.17* (2.196)	364.50*** (3.218)	-1346.80 (-.428)	1655.29 (.452)
컴퓨터소유	97.74 (.220)	99.91 (.944)	5163.31** (1.704)	2702.89 (.772)
아버지교육수준	-104.18 (-.980)	62.48** (2.450)	-450.68 (-.662)	2864.23*** (3.397)
어머니교육수준	310.35*** (2.657)	130.94*** (4.669)	-208.85 (-.267)	-1080.18 (-1.169)
아버지전문직	1059.27 (1.544)	-8.89 (-.053)	11574.53*** (3.010)	-3472.92 (-.650)
어머니근로	-294.25 (-.608)	17.90 (.155)	6046.61* (1.781)	2524.92 (.593)
자녀수	292.95 (.817)	-136.26 (-1.577)	-3562.70 (-1.343)	1213.80 (.392)
학생성별(남성)	-1300.90** (-2.539)	-123.10 (-1.016)	-3200.72 (-.896)	5945.25 (1.336)
학생성적1(상위10%)	375.06 (.748)	212.08* (1.771)	2903.33 (.863)	-5176.91 (-1.321)
학생성적2(10-30%)	557.11 (1.082)	322.14*** (2.618)	-1640.51 (-.437)	466.135 (-111)
학생성적3(70-100%)	4032.00*** (3.151)	-332.35 (-1.076)	37282.64*** (3.058)	-3811.02 (-.316)
중학생	134.97 (.269)	491.69*** (4.055)	1011.48 (.315)	3374.88 (.729)
고등학생	2412.84*** (3.867)	2304.97*** (15.337)	11554.75*** (3.064)	-17183.17 (-1.493)
재수생	-2312.87 (-1.412)	-363.50 (-.989)	26999.60* (1.680)	-
d.f	4634	4001	532	1406
Adj R ²	.025	.106	.157	.009

주: ()내는 t-value,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조사 원 TAPE자료.

경우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외에 있어서도 여학생의 안전이나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위하여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소득자, 주택소유자, 아파트 거주자, 컴퓨터 소유자, 고학력자, 자녀수가 적은 자 등이 자녀의 과외에 더 많이 지출하고, 학생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과외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과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또한 과외에 대한 투자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상에서 확인된 과외에 대한 수요 유형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연구된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의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의 경우에도 학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자녀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상의 실증결과는 과외에 대한 수요를 학교교육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한 교육수요라는 해석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과외 지출과 가격에 대한 분석결과는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과외 지출이 고소득자, 대도시 거주자, 주택소유자, 아파트 거주자, 컴퓨터 소유자, 고학력자, 자녀수가 적은 자 등이 더 많고, 학생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더 많다는 결과는 과외의 혜택이 형평성에 있어서 역진적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학생성적이 낮은 학생 및 여학생의 과외 가격이 높은 것도 보다 교육 혜택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한 과외의 비용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역진적일 수 있다.

V. 학교 제도와 과외: 평준화 대 비평준화

과외가 학교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한 초과수요의 결과라는 우리의 논거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분석은 고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 과외 지출의 비교이다. 본고에서 이를 위한 분석에 이용한 자료인 도시가계연보 1998년 Tape으로써, 이 자료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출 및 소재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득 자료가 없고 과외 지출의 경우 가구별 자료만 가능하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및 재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과외도 포함되어 있다.

1998년 현재 비평준화 지역⁸⁾에서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학생들을 모집하므로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교육 과정, 교원 인사, 학교 운영 등에 있어서는 매우 강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준화 정책의 대안으로 비평준화 지역을 상정하는 논의 자체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즉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정부의 강한 규제에 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데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선택권이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중학생의 경우 선택권으로 인하여 경쟁의 압력이 심화되어서 비평준화 지역에서 과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강한 다른 강한 규제는 그대로 두고 비평준화 지역에서 선택권만을 허용한 정책이 과연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를 상대적으로 낮춤으로써 과외 비용을 낮춘 것인지 아니면 초·중학생의 경쟁을 심화시켜 과외비를 오히려 증가시킨 지는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볼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과외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소득, 부모학력, 자가 소유 여부, 어머니 근로 여부 등을 통제한 후에도 비평준화 지역의 과외 지출이 평준화 지역의 과외 지출보다 낮은가에 대하여 네 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비평준화 지역을 전체 평준화지역과 비교할 경우, 평준화 지역은 대도시 지역인 서울과 광역시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서울과 광역시 더미 변수로 이를 통제하여도 중소도시만으로 이루어진 비평준화 지역과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소도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분석 대상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울과 광역시를 포함한 전체지역의 분석과 동시에 이를 제외한 중소도시만을 대상으로도 같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유치원생과 재학생 포함) 한 명 이상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학생도 포함되므로, 고등학생이 적어도 1명 이상인 가구를 분리하여서도 분석하여 보았다.⁹⁾

8) 1998년 비평준화 지역은 서울특별시, 5대 광역시, 전주, 수원, 청주, 아산, 제주, 성남, 진주, 창원 등을 제외한 지역이다.

9) 도시가계연보에서는 중고등학생으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중고등학생이 1인 이상인 가구 중에서 고등학교 납입금의 항목이 0 이상이거나 자녀의 연령에서 17세 혹은 18세(16세의 경우 중학생일 가능성, 19세

〈표 6〉 근로자 가구의 과외 지출(월별)에 대한 OLS 추정결과: 1998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항	-319732*** (-12.367)	-241187*** (-7.612)	-333991*** (-3.404)	-227657** (-2.015)
비평준화지역	-9807.39*** (-2.782)	-7371.32* (-2.333)	-35150*** (-2.758)	-27020** (-2.138)
서울지역	28280*** (7.997)	-	47303*** (3.768)	-
광역시	-8857.87** (-2.552)	-	-35750*** (-2.886)	-
가구소득	0.00718*** (15.83)	0.01172*** (12.05)	0.01039*** (6.063)	0.01316*** (4.272)
자가소유여부	17352*** (8.275)	8679*** (2.918)	-2342.20 (-0.322)	-7265.87 (-0.622)
어머니가장	30.01 (0.005)	-6450.69 (0.743)	31058* (2.088)	26957 (1.402)
어머니근로	6559.85*** (3.057)	30995*** (9.952)	1242.31 (0.179)	60205*** (5.475)
가구주학력	13914*** (38.73)	11765*** (21.99)	22375*** (20.94)	24645*** (12.874)
가구주연령	5175.67*** (4.223)	2900.48* (1.901)	945.46 (0.208)	-7577.95 (-1.433)
가구주연령제곱	-41.27*** (-2.933)	-19.07 (-1.075)	21.16 (0.406)	127.91** (2.083)
유치원생수	30320*** (11.91)	27487*** (7.994)	288878*** (11.06)	-10239 (-0.245)
초등학생수	58131*** (30.75)	55523*** (21.42)	22109** (2.037)	49600*** (3.397)
중고등학생수	68374*** (32.88)	53455*** (18.44)	66695*** (9.034)	64624*** (5.795)
재수생수	139464*** (18.77)	180763*** (14.24)	127599*** (5.052)	285564*** (6.379)
대학·대학원생수	-10570*** (-2.72)	-9341.35 (-1.600)	-18810* (-1.908)	3081.57 (0.218)
d.f	20093	8189	3585	1417
Adj R ²	0.2002	0.1996	0.2323	0.2118

주: () 내는 t-value, ***: $p < 0.01$, **: $p < 0.05$, *: $p < 0.1$

모형 1 - 전체지역, 학생(유치원생과 재수생포함) 1인 이상 가구

모형 2 - 중소도시지역, 학생(유치원생과 재수생포함) 1인 이상 가구

모형 3 - 전체지역, 고등학생이 적어도 1인 이상인 가구

모형 4 - 중소도시지역, 고등학생이 적어도 1인 이상인 가구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원 TAPE자료.

일 경우 대학생일 가능성이 있음)가 있는 가구들을 분리하여 '적어도 1명 이상의 고등학생을 둔 가구'로 정의하였다.

〈표 6〉은 네 가지 모형에서 모두 비평준화 지역의 과외 지출이 평준화 지역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이 적어도 1명 이상인 근로자 가구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에서 가구 당 약 2만 7천원(모형 4)에서 3만 5천원(모형 3) 만큼 과외지출(월별)을 적게 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즉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이 인정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평준화 지역보다 고등학생의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가 적음으로써 과외지출이 그만큼 낮으며 이러한 효과는 초중학생의 고입 경쟁을 유발하여 과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기서 가구 당 과외 지출에 대한 추정 결과들은 앞에서 학생 당 과외 지출의 추정 결과와 상응하고 있어서 우리의 추정 결과들이 안정적임을 보여 준다. 가구 당 과외 지출도 학생 당 과외 지출과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 및 가구주(학부모) 학력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초등학생에 비하여 중고등학생, 재수생에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어머니가 근로하는 경우 학생 당 과외 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가구 당 과외 지출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머니가 근로할 경우 자녀수가 그 만큼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 교육 형평성과 과외

다음으로, 과외의 급팽창→교육의 형평성 훼손이라는 우리의 두 번째 논거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자. 과연 현재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평준화 정책을 축으로 하는 우리의 학교 정책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간 질적인 차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교운영 등 학교교육의 투입요소(input)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교육의 형평성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학교교육 투입요소의 학교간 차이는 크게 없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과외는 계층별로 역진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앞에서의 분석은 과외 지출이 고소득자, 대도시 거주자, 주택소유자, 아파트 거주자, 컴퓨터 소유자, 고학력자, 자녀수가 적은 자 등을 중심으로 역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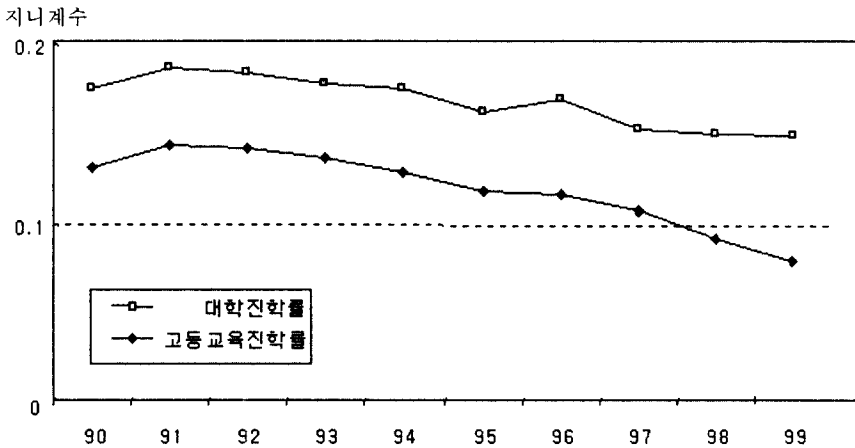
결국 앞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과외가 상위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과외 지출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상위 대학 진학률의 커다란 불평등을 결과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학교교육의 형평성을 학교교육의 투입요소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통하여 강제하려 하였던 정부 노력은 과외의 확대와 이에 따른 형평성 악화 효과에 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의 형평성 변화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자. 본고에서는 대학 진학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생들이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더 나아가 상위 대학에 골고루 진학하느냐가 우리의 학교교육이 형평성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일 것이다. 먼저 전체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 기회의 형평성은 적어도 서울시 지역별로는 개선되고 있다.¹⁰⁾

〈그림 2〉에서는 자료가 가능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시 지역구별 고졸자의 진학률의 지역간 형평성에 관한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은 물론 4년제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도 서울시 지역간 불평등도는

〈그림 2〉 서울시지역(구)별 고졸자 진학률의 지니계수 추이:1990~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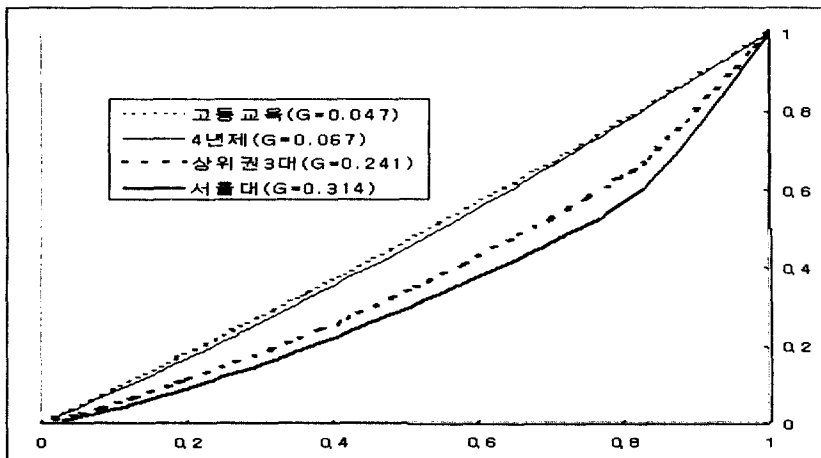
10) 일본의 경우에도 고등교육에의 접근기회가 증가하여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은 높아졌으나, 부유층자녀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져서 실질적 사회적 이동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OECD, 1987).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것은 1999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84%, 대학진학률이 43%에 도달하게 되면서 고등교육 진학기회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까지도 골고루 미치게되는(trickling down)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앞에서와 같이 과외 지출이 상위 대학 진학률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개별 대학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혹은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의 차이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간 상위 대학의 진학률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자료가 가능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본고는 평준화 고교 고졸자(일반계 고교 중에서 특목고를 제외한)의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지니계수의 차이를 <그림 3>에서 보았다.

진학률의 지역간 불평등도 지니계수가 서울대학교의 경우 가장 높은 0.314인 반면, 상위 3개대학의 경우 0.241, 4년제 대학의 경우 0.067,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0.047로 나타났다. 결국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있어서 형평성은 상위 대학 진학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의 분석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과외가 상위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외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평준화 정책을 축으로 한 학교정책만으로는 상위대학 진학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림 3> 서울시 지역(구)별 고졸자(평준화) 진학률의 로렌츠 곡선: 1999



VII. 결어

우리는 과외가 학교교육이 부응하지 못한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과외의 급팽창→교육의 형평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음을 과외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일관된 실증적 근거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고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양적 팽창을 통한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주요 목표를 빠른 기간에 달성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는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 시점에서는 교육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하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고소득자, 주택소유자, 아파트 거주자, 컴퓨터 소유자, 고학력자, 자녀수가 적은 자가 자녀들의 과외에 더 많이 지출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과외에 더 많이 지출하며, 비평준화 지역에서 과외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과외가 학교교육이 부응하지 못한 초과교육수요와 밀접히 관계됨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우리의 학교교육이 평준화정책 등과 같이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형평성에 있어서 조차 과외의 급팽창을 통한 형평성 훼손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기하였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성급한 정책 제언을 유보하면서 본고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학교정책의 개혁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학교교육이 부응하지 못한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의 경감→과외의 감소→교육의 형평성 제고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교육의 형평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공정책에서 논의되는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있어서, 우리 교육의 경우 과외가 하나의 완충제(buff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형평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평준화 정책을 축으로 한 현재의 학교정책을 개선하여 만약 학교교육이 부응하지 못한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가 경감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정책은 동시에 과외를 줄이고 이에 따라서 과외의 형평성 훼손효과를 줄임으로써 교육의 형평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공은배, 『교육투자 규모와 수익률』, 한국교육개발원, 1985.
2. ———,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1990.
3. ———, 『한국 교육투자의 실재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4.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1~4)』, 1996.
5. 교육부,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1995~2010』, 2000.
6. 김영철, 『교육투자 규모와 적정 단위 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 1982
7. 김태일,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제7권 제3호, 1998.
8. 김홍주,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9. 유윤희, 『과외의 경제학』, 교육개혁연구회(www.thinknet.or.kr/forumlist.htm), 발표자료, 2000.
10. 윤정일, 『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한국교육개발원, 1977.
11. 이주호·우천식,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정책연구』, 제 20권 제 1·2호, 1998.
12. 조우현, “디지털한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미발간원고, 2000.
13.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원 TAPE자료』, 1998.
14.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조사 원 TAPE자료』, 1997.
15. Lee Ju-Ho and Hong Song-Chang, “Private Tutoring and Educational Inequality,” manuscript,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2001(forthcoming).
16. McGinn, Noel et. al., *Educ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17. Park, Se-Il, “Managing Education Reform: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1995-97,” *KDI Policy Study 2000~01*, 2000.
18. OECD, *Structural Adjust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Paris, 1987.
19. World Bank, *Priorities And Strategies For Education*, 1995.